

재림과 부활의 확실한 소망

성경말씀: 살전4:13-18

일산 김옥림 자매님, 1년 반 전 송내 예배당(박미선 자매님), 미션 스쿨을 다녔어도 구원이 믿기지 않음.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믿고 받아들임. 반 년 정도 잘 다니다가 예배당 이전으로 안 나오심
갑자기 4주 전에 다시 오심, 남편 고 오석호 선생님(47년 생, 만 66세), 건강하신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 무균실, 방문 불가, 지난 주일에는 안 나오시기에 동생(김정천 자매님)을 만나
제가 방문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겠다고 함. 월요일 아침에 별세 소식 ????? 입관 예식
목사로서,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화요일 5시에 감. 10여 명의 성도들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는 순서, 고린도후서 5장 1-4

천국에서 만나보자(293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욥14:1-2) 그분이 쓰던 몸, 장막은 여기 있지만 사실 그분은 없다.

내 몸이 거기 누웠을 때 내 아이들 생각이 남.

“제가 더 도울 일이 없습니까?” 아침의 발인과 하관 예식을 도와달라. 준비했는데 아침에 가니 매장이
아니라 화장임.

고인이 이룬 사업체 두 곳 방문, 11시에 양재 화장터, 화장로에 들어가서 1시간 30분이 되니 그분의
몸은 몇 개의 굵은 뼈만 남고 모두 사라짐. 분쇄기에 넣어 간 뒤 유골함에 넣음.

“이게 사람인가?” No!!!!(욥14:14)

마지막으로 마석의 가족 묘지로 가서 안장,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유해를 묻음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이 몸을 두고 올지만 사실 죽은 자는 거기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욥19:25-26)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291장)

지금 우리의 이 몸을 보자. 젊을 때는 피부가 곱고 주름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등이 굽고 걷지 못하고
병이 들고 결국 죽는다. 네 어머니 다발성 골수종, 투석,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함
죽음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책을 다시 전해야겠다는 각오. “재림과 부활의 확실한 소망”

사람은 다 죽는다(히9:27)

왜 죽는가? 세 가지 질문: “어디에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창조되어서 불멸의 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 자체가 혼이다(창2:7).

몸은 죽어도 이 혼은 죽지 않는다. 가장 큰 선물이면서도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고생한다.

다른 것은 용서가 되어도 지옥을 택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

6,000년 전, 창조, 사람의 시조: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
영적으로 주었고 결국 육신적으로도 죽었다.

사람이 죽는 이유: 죄, 죄는 피를 타고 유전이 되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마귀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창5:1, 3, 5, 8, 11, 14...27).

하나님의 구원 방법: 대신 속죄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주인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주인의 명령에 직접 대들며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손상을 입었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희생 예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들 앞에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에이프론
대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창3:21).

죄로 인한 수치는 무죄한 것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가려질 수 있다.

이것을 ‘대신 속죄’라고 한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창4의 가인과 아벨: 둘 다 자기의 소산을 가져왔다.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양 떼의 첫 새끼들을 죽여 헌물을 가져 왔다. 가인은 최상품 농산물을 가져왔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데 문제가 있다. 히11:6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집트 400년 종살이, 고통과 괴로움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기둥과 인방에 뿌림으로 장자의 파멸을 막아주셨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믿음의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속죄의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짐승은 죄는 없어도 완전하지 않으므로 예배자들을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히10: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어린양: 대신 속죄의 희생 예물

짐승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롬8:3).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갈4:4).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요1:29)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완전한 피를 단 한 번 영원히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만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셨다(사53:10-11).

이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었다.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십자가로 마귀와 그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은 몸, 사흘 동안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 창시자의 가르침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빈 무덤, 이것들이 빠지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된다.

옆 방의 교수 이야기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갈 자들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요5:24-25, 28-29)

사람은 불멸의 혼이므로 악인이나 선인이나 죽어도 다 다시 부활한다.

심지어 몸은 죽었어도 그는 살아 있다(눅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알아보고 다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혼을 귀중히 여겨라.

마16:26, 마10:28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재산, 학식, 명예, 건강 중요하다. 끝이 아니다.

결론

고대 이방 세계 사람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다.

비문: “나는 없었다가 이 땅에 왔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죽은 친족들에 대해 염려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자들보다 못하냐?”

죽음과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까? 신비주의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자들...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말한다. 추론이나 이론이 아니다.

고전15:51-54,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성도의 부활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헛 소망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려오신다. 이 땅의 몸과 연합시킨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바로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몸이 변화되며 순식간에 휴거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여야 한다(18).